

미얀마 2022: 혼돈의 지속과 암울한 미래*

박 장 식**

국문초록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한 NLD 주도의 미얀마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이었던 2021년 2월 1일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재집권은 이제 거의 2년째에 들어서고 있다. 근거 없는 총선의 불법 사례를 빌미로 2008년 헌법에 규정된 비상사태 선포를 통하여 정치 전면에 등장한 군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의 강한 저항을 맞았다. 이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시민의식이었다. 따라서 2022년에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돈은 계속되었다. 시민저항, 서구의 경제 제재, 사회적 무질서와 불안정 및 종교적 불신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들이 부상되었던 시기였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재집권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22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또 어떠한 점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정권장악, 2008년 헌법, 국가행정위원회, 시민저항운동, 레비아단, 경제 제재, 갈등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johnspark@dau.ac.kr

I. 머리글

2020년 11월 8일에 실시되었던 총선은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혼돈과 온갖 잡음을 일으킨 가운데서도 민주국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승을 거두었다. NLD 정부가 주도하는 미얀마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이었던 2021년 2월 1일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정치권 장악은 이제 거의 2년째에 들어서고 있다. 근거 없는 총선의 불법 사례를 빌미로 2008년 헌법에 규정된 비상사태 선포를 통하여 정치 전면에 등장한 군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의 강한 저항을 맞았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참여한 이른바 시민저항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은 과거 1962년과 1988년의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¹⁾ 발발 시점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군부 내부에서도 NLD 측의 극심하고도 무력적인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전국적인 비폭력 저항에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일정 기간 군부가 이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그런 점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집단적 반발은 나타나지 않지만, 대체로 침묵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며 버티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지식인들은 이번 사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군부 혐오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여전히 미얀마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예상대로 군부의 강압적인 정치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변방에서는 국민통합정부(NUG, N

1) 1958년 9월에 당시 총리 우누(U NU)가 국가 전복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군중사령관 네윈(Ne Win)에게 '군부 위임 정부'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군부는 정권을 1960년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우누에게 위양하였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쿠데타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ational Union Government)와 그 산하의 국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s) 및 소수종족 반군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들이 월등한 화력을 지닌 땃마도(미얀마국군)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대의 미얀마는 발전 및 성장이라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 산산조각이 난 채 거리에 나뿔굴고 있다. 그 부서지고 버려진 조각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향후 존재할지 모르는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재집권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또 어떠한 점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혼돈의 정치적 상황

1. 군부의 정치·군사 활동

AAPP(2023)에 따르면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17,250명이 체포되어 그중에서 13,496명이 여전히 구금 중이며 석방된 사람은 겨우 3,727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2,734명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군부의 재집권 이후 여전히 정세가 불안정하고 군부 지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NLD는 완전히 와해되었고, 소속 지도자나 의원 및 지지자의 대부분이 체포·구금된 상태에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형 집행도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있다. 특히, 저

가잉(Sagaing), 머그웨이(Magway), 만달레(Mandalay), 양공(Yangon) 등 버마족 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여카잉(Rakhine), 친(Chin), 꺼친(Kachin), 꺼야(Kayah), 꺼잉(Kayin), 떠닝다이(Tanintharyi), 에아워드(Ayeyarwady) 등 소수종족이 주로 거주하는 변방 지역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NUG 소속의 PDF나 소수종족 반군의 군사 활동(EAO)²⁾도 계속되어 미얀마군과의 교전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양공, 만달레 같은 대도시에서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산발적인 폭탄 테러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 일반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2021년 2월 1일 이후 미얀마 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고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20세기 말 군부 지배 종식과 함께 시작되었던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경제 발전도 일시에 중단되었다.

2021년 2월 1일 일방적인 비상사태 선포 이후 군부는 곧장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를 설치하고 밉아웅홀라이 총사령관을 총리로 하는 정부 조직을 출범시켰다. 2022년 8월에 정부 조직을 재편하여 NLD 정부 시절 25개에 달하던 연방 행정부처는 현재 30개로 늘어났다(KOTRA 2022: 11). 정치·국방·내무 등 군부 정치의 핵심적인 요직은 군 출신 인사가 발탁되었지만, 외교 및 경제 재건을 위한 주요 경제 부처에는 떼인세잉과 NLD 정부 시절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 재발탁되기도 하였다. 외교부 장관 우원나마웅르윙은 떼인세잉 정부 시기에 외교부 장관직을 맡아 아세

2) 꺼친주의 꺼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 및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아라칸군(AA, Arakan Army)이 대표적이며, 여전히 미얀마 깃발과 교전 상태에 있다. 이들 반군집단은 군부의 집권 이전부터 꾸준히 독립을 목표로 군사 활동을 펼쳐왔던 이유로 특별히 NUG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꺼잉족연합기구(KNU, Karen National Union) 산하의 반군 조직인 꺼잉족해방군(KNLA, 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이 과거 미얀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 조직을 지녔으나, 1995년 꺼잉군의 분열을 이용한 깃발도가 그들의 본거지였던 머네플로(Manerplaw)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와해되었다. 다른 군소 반군은 SNS에서 떠도는 얘기와 달리 실제로 깃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만한 군사 규모를 갖고 있지 않다.

안, 미국, EU 등과 대외관계 정립에 맹활약을 한 바 있다. 군 출신이긴 하지만 FDI 유치 전문가였던 우아웅나잉우(NLD 정부에서 투자·기업관리국의 국장을 역임)가 투자·대외경제부에서 상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떼인세잉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간조 박사가 군부 등장 직후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투자·대외경제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³⁾ 그 외 경제 관련 부처는 대개 민간인 출신이 맡아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총선거 실행을 위한 준비

군총사령관 밍아웅홀라잉은 군부 집권 직후인 21년 3월경 국영 MRTV가 중계한 장교 양성 대학의 교수들과의 회담에서 “국가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면 2023년 8월 다당제 총선거를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Bloomberg News 2021). 특별한 집권 연장의 사유가 없다면, 헌법에 명시한 비상사태 기간도 최초 1년에 더해 6개월의 2회 연장이 최대인 점(2023년 1월 31일까지)을 고려할 때 후속적인 연장에 대한 명목은 총선거와 그 준비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군부는 15명으로 구성된 연방선거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에 돌입하고 있는 등 착실히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Strangio 2023).

하지만, 군부가 계획하고 있는 8월의 총선은 실제로 미얀마 독립 이후 우기에 해당하는 절기⁴⁾에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

3) 간조 박사는 투자·대외경제부 장관에 오르자마자 FDI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군부의 경제 활력을 돕는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국가행정위원회의 주요 장관들은 예외 없이 서구의 제재를 받고 있다.

4)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는 몬순 기후를 지닌 미얀마에서는 불교 승려들이 안거에 들어가고 비가 많이 내려 생활에 지장을 주는 우기(대체로 5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에

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미얀마 군부와 소수종족 분쟁에 대한 전문연구자인 메리 켈러한(Callahan 2023)은 2023년 8월 초로 예상되는 총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하원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도 현행 330개에서 100개를 더 늘려 군부 후원 정당의 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2008년 헌법에서 군부 지명 의원 수가 정족수의 25%이니까 총선에서 의원 수 26%를 확보하여 과반수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두 번째는 CDM이 여전히 존재하고 폭탄 테러 등 유혈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추론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폭력 사태가 예상되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투표자가 투표소로 가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⁵⁾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3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던 1951년 선거⁶⁾와 마찬가지로 총선은 수개월 끌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완전히 조직이 붕괴한 NLD의 불참이 확실한 가운데 친군부 정당 연방결속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외에 이번 선거에 참여할 정당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아마도 USDP와 연대하고 있는 소수종족 정당 및 NLD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정당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는데, 적어도 10개 이상의 정당이 나설

가능한 한 의례나 행사를 자제한다. 우기는 양력 9~10월에 해당하는 더딘쥬(Thadingyut) 월의 등축제로 그 끝을 고하며, 그 이후 미얀마인은 결혼식 등 우기에 못 했던 각종 행사를 시작한다.

- 5) 자주 연락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 따르면, 다음 학기 여름방학에는 미얀마로 오지 말고 한국에 있으라는 부모님들의 당부가 있었다고 한다. 8월 초 선거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엄청난 폭력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6) 버마공산당(CPB), 인민의용군(PVA) 및 께잉민족연합(KNU) 등의 무장봉기로 인하여 1951년 선거는 6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4월까지 실시되었다. 지역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반군 공격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한 다음 차례로 선거를 시행하였다. 당시 우누(U Nu) 총리의 AFPFL당은 투표율이 20%에도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총 250석 중에서 147석(60%)을 확보하였다. 테일러에 따르면, 1951년 선거는 정부 구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치부 가리개’(a mere fig leaf)에 불과했다고 한다(Taylor 1996: 173).

수도 있다.)⁷⁾ 마지막으로 미얀마를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군부의 ‘엥터리’(sham)⁸⁾ 선거를 지지해줄 국가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무기 공급처이자 유엔에서 외교적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으니 당연히 이 선거의 결과를 추진할 것이다. 인도와 태국도 각자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 과정과 결과를 인정할 것이다. 태국 외에도 정치적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세안의 후발 국가들은 묵시적인 지지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미얀마 군부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는 2008년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를 실행에 옮긴다면, 정당 등록과 선거 운동을 규정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최소한 2023년 초에 공포하고 5~6월에는 선거 공고를 낼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예상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테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군부 집권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선거라도 시행하여 2010년의 경우처럼 친군부 정부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대도시 지식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⁹⁾

7) 이번 선거에 참여가 확실시되는 정당은 다음과 같다. 산족민주당(SNLP), 국민당(PP), 국민민주전선(NDF), 국민선구자당(PPP), 민주당(DP), 연합민주당(UDP), 삐오민족기구(PNO), 국민통합당(NUP), 아라칸전선당(AFP), 신민주당(NDP), 신국민민주당(NNDP), 민주세력노동당(DFLP) 등이 있고, NDF와 PPP는 NLD와 결별하여 별도로 구성된 정당이다.

8) 미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이 2022년 8월 3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여 아세안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 용어를 구사했고(Mizzima TV, <https://www.youtube.com/watch?v=Zlhq3AA3cMk>), 그 이후 서구 언론이나 학자들은 군부의 선거를 폄하하는 의미로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9) 인터뷰에 응했던 거의 모든 양공이나 만달레 같은 대도시의 중산층 지식인들은 한결 같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나마 군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총선을 미룬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자축파티라도 참여해서 뒷일을 도모하자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중산층의 급여 생활자들은 생계 곤란에 직면하여 초기 저항 의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3. 대외 협력 관계 모색

러시아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가 8월 3일 전격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른바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놓인 양국이 자연스럽게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셈이다. 아마도 그의 방문 목적이 뻔히 들여다보였는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바탕에서 세워졌으며, 어떤 기회주의적 과정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라브로프는 강조하였다(Strangio 2022). 러시아의 미얀마 군사 장비나 장교 교육 지원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와서 러시아 접근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서구 제재의 극복과 정치·경제에 있어서 중국 편중 탈피의 기회로 삼고자 할 목적도 다분히 갖고 있다.

군중사령관 밍아웅홀라잉은 국제적인 고립 상황을 러시아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극복해보려는 것 같다. 따라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사회의 다양한 제재를 받기 시작하자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 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밍아웅홀라잉은 2022년 7월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였고 이때 러시아 우주 및 핵 관련 기관의 관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해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러시아 주최의 제9차 동방경제포럼에도 참가하였다(Aljazeera 2022). 국가 원수가 거의 두 달 간격을 두고 한 국가를 연속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가 상호 이익을 전제하여 건전한 배경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차원이라면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할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미얀마를 둘러싼 아세안이나 서구 국가 및 중국조차 미얀마의 러시아 접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전통적으로 고립된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은 사실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기존의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에는 국내 사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며 개입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하였던 샤프란 운동 등 세계적인 시선을 끌었던 2007년 9월의 긴박한 미얀마 정세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Bristow 2007). 이번 군부의 정치적 장악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서도 이전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2022년 7월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Wang Yi)가 군부의 집권 이후 미얀마를 방문한 것 외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미얀마의 정치적 사태에 대한 인도의 반응은 중립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2022년 7월 미얀마 군부가 정치범 네 명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된 그다음 날 주미얀마 인도 대사 비나이 꾸마르(Vinay Kumar)는 미얀마 외교부 장관 우윈나마웅르wing(U Wunna Maung Lwin)과 만나 향후 양자 관계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rishnan 2022). 인도 동북부 지역에 형성된 소수종족 난민캠프 문제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 제도가 실현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인도가 이토록 미얀마 군부와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인도가 미얀마에 눈독을 들였던 천연자원의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벙골만의 천연가스는 중국에 빼앗겨버렸지만,¹⁰⁾ 여전히 추가로 가스전이 발견될 가능성

10) 천연가스를 둘러싼 미얀마 주변 국가들의 각축전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박장식(2009)을 참조할 것. 결국 자원 부국 미얀마에 대해 국제관계의 만달라 모형에 가장 기본축이 되는 중국,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그 어떠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관여할 수 없다.

이 크고 희토류가 많아 에너지 자원 부족에 허덕이는 인도에 있어서 미얀마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양국 모두 등거리의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면, 험준한 고산처럼 여겨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크리시난(Krishnan 2022)은 인도의 친군부 지지는 결국 점차 눈덩이처럼 그 부담이 커져 2017년 로힝자 사태와 마찬가지로 인도에 대규모 난민 캠프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 집권 이후 미얀마 국민의 거센 CDM을 무력으로 봉쇄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군총사령관 밍아웅홀라잉을 초청하여 2021년 4월 24일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의장 성명을 통해 ‘5개 합의안’(5 Points Consensus)¹¹⁾을 발표하였다. 아세안 회원국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의 원칙을 깨뜨리고 미얀마 군부에 대한 엄중한 아세안의 권고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결정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주도하였고 그 뒤를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따랐다. 아세안 특사로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프락 소콘(Prak Sokhon)이 아세안 사무총장 다토 림 족 호이(Dato Lim Jock Hoi)와 함께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얀마 측의 SAC 사무총장 및 주요 장관들과 회담을 가졌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밍아웅홀라잉은 3월 27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테러 집단과 그 지지자들과의 협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최후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아세안과의 5개 합의안을 스스로 폐기하였다(HRW 2022). 앞에서 언급했듯이 태국 군부의 리더로 쿠데타를 통해 정치권을 장악하고 그 후 민간인 신분으로 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태국의 찬오차

11) ‘5개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 내에서 즉각적인 폭력의 중단, 둘째 모든 당사자와의 대화, 셋째 특사의 지명, 넷째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다섯째 특사의 미얀마 방문과 모든 당사자와 면담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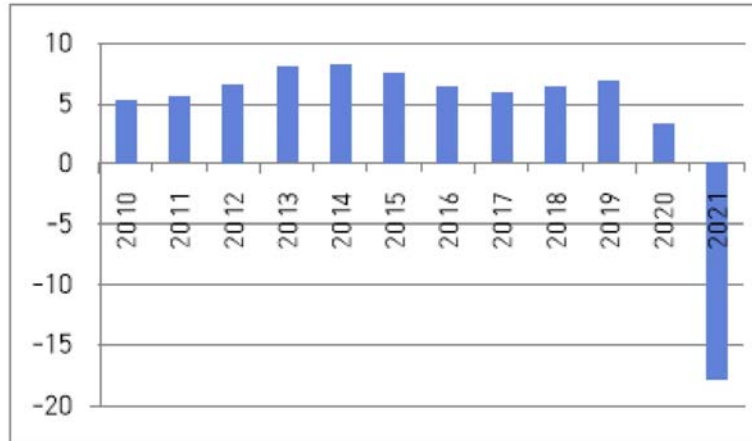
(Prayuth Chan-ocha) 총리는 미얀마군총사령관 밍아웅홀라잉과 막후의 채널을 가동하여 정국 운영에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can-Markar 2021). 태국도 안다만(Andaman)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태국 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30%가 이곳에서 공급된다(박장식 2009: 111). 그 외에도 국경 무역의 확대, 수력발전소 건설, 심해 항구 개발 등에도 양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 외에도 태국 군부의 특성인 경제 분야 진출을 답습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로서는 태국 군부와 긴밀한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도 미얀마 군부와의 은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의 미얀마에 대한 계속된 압박은 내정 간섭 불가라는 아세안의 정신을 해쳐 아세안 유대의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어 이전의 로힝자 사태에서 아세안 회원국이 보여준 중립적 태도가 이번에도 적절히 적용되고 있다.

Ⅲ. 제재로 경직된 경제 상황

1. 예상된 경제 사정의 악화

미얀마는 군부 지배가 종식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GDP 성장률은 연 5% 내외로 미얀마는 성장의 가도로 달렸다. 이는 오랜 기간 폐쇄되었다가 과감한 개방을 시도했던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표 1> 미얀마의 최근 10년간 실질GDP 성장률(%) 출처: IMF



<표 1>에서 나타나듯이 NLD 정부(2016~20년)보다 떼인세잉 정부(2011~15년) 시절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아 2013년 7.9%, 2014년 8.2%이다. NLD 정부에서는 미얀마 경제가 약간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로힝자 사태의 발생과 아웅산수찌의 군부 인권 탄압에 대한 침묵으로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로 인하여 미얀마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미얀마 방문 보이콧도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성장률은 3.2%로 떨어졌다가 미얀마 군부의 집권으로 예상대로 무려 17.9%로 추락하였다.

미국, EU, 영국 등 서구사회의 제재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의 철수 및 대외신뢰도 악화로 인하여 현지 화폐 샯(kyat)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2022년에는 달러당 환율이 약 57.9%나 상승하였다(KOTRA 2022: 12). 현지 샯화의 가치하락은 계속되어 한 때 4천 샯이 넘는 적도 있으며, 현재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미화 1달러당 2100샯의 고정환율을 채택하고 있고 2022년 12월 말에 시장환율은 2800샯에 이

른다. 외국투자가 현저히 줄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되지 않는 현 군부의 경제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지의 외국인 기업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지 봉제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가공 수익으로 달러가 외국에서 입금되면 65%는 고정환율이 2100짜리로 한 달 안에 환전해야 하며, 나머지 35%는 시장환율 2800~2850짜리로 바꿀 수 있다. 군부 집권 직전이었던 2020년 1월의 환율이 1400~1440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얀마의 물가 상승을 짐작할 수 있다.

군부 집권 직후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둔 몇몇 다국적 기업들의 미얀마 철수가 결정되었다. 또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따라 자연스럽게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 기업들도 생겼다. 일본은 쇼핑몰 AEON과 주류회사 Kirin이 사업을 포기하였고, 싱가포르의 담배회사 Lim Kaling, 태국은 부동산 개발의 Amata, 호주는 해상 광구 개발회사인 Woodside, 안드만해의 가스전 개발회사인 미국과 프랑스의 Chevron과 Total¹²⁾이 철수하였고, 미얀마 통신 분야에 진출했던 노르웨이 Telenor의 매각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는 2020년 48억 8천만 달러에서 2021년 37억 9천만 달러로 무려 22.3%나 줄었다(KOTRA 2022: 14). 하지만, 사업 투자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완전히 미얀마에 정착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이나 봉제업 분야에서는 군부의 정권 장악으로 노동운동 주도 세력의 검거와 함께 집단 노동쟁의가 중단된 상황 및 미국 달러에 대한 미얀마 현지 화폐 찢의 가치하락으로 군부 재집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사업 운영의 기대가 있었으나, 시

12) 프랑스 토탈사의 철수로 야더나(Yadanar) 가스전 프로젝트의 지분 37%를 태국석유공사(PTTEP)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어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야더나 가스전의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태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어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쉘브론이 철수하면 그 미얀마 자회사인 Unocal Myanmar Offshore사가 쉘브론의 지분인 41%를 소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 및 기존의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이중적 영향으로 물량 주문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2022년 중반을 넘어서 폐업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군부의 외환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기업의 운영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³⁾ 현지 봉제업 관계자는 이 상태가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중소 규모의 기업은 버티기 어려울라 전망하였다. 한편,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서구가 아닌 아시아 쪽 오더를 지닌 몇몇 기업은 신규 투자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특히, 베트남의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그곳 상당수의 한국 봉제업체들이 미얀마 진출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미국, EU, UN의 제재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는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에서 가하고 있다. 재무부에서는 군부의 정치 장악 직후인 2021년 2월 11일부터 2022년 11월 8일에 이르기까지 29차례에 걸친 제재가 가해졌고, 2022년에 들어와서 8차례의 제재가 계속되었다. 주로 군총사령관을 포함한 군부 관련 인물 95명 및 34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미국 내의 자산 동결과 거래 제한의 조치를 단행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한편, EU의 경우에도 21년 2월 4일 미얀마 개발원조를 중지한 데 이어 22년 8월 11일까지 총 84명의 군부 관련 인물과 11개 기관에게 제재를 가했다(Council of the EU 2022). 영국, 캐나다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소규모의 제재를 내놓고 있다.

13) 미얀마중앙은행은 2022년 4월 3일 자로 미얀마 내 모든 달러화 계좌에 대한 현지화 강제 환전 조치를 발표하여 해외에서 송금된 달러화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현지화 잣으로 환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달러당 잣화의 환율은 처음 1850잣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약간의 변화는 생길 전망이다. 여기에는 대사관 및 외국계 은행 계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Nikkei Asia 2022).

이번 제재에 포함된 미얀마의 국영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L),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미얀마경제공사(MEC)는 거대한 경제적 이익 단체(장준영 2021:1)라고도 불리는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핵심 그룹에 속한다. 일본의 주류 회사인 Kirin은 MEHL과 손을 잡고 주류 분야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지만, MEHL의 제재 리스트 등재로 인하여 자사 제품의 불매 운동 등 영업 손실을 보았던 Kirin은 22년 후반기에 철수를 완료하였다.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MOGE와 함께 뱅골만의 셰 가스전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MOGE의 제재에 따라 포스코도 가스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군부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비난이 상당하다(참여연대 2022). 사업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미국 쉘브론과 프랑스 토탈사의 사업 철수 건과 사업 초기에 있는 포스코의 경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스전 시추에 성공한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사업권을 사들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는 MOGE와 합작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제재에 올라간 기업이나 기관은 대개 국영기업이지만, 군부와 결탁하여 자금 세탁 및 무기 구매 등에 간여해온 미얀마의 민간인과 민간 기업(International Gateways Group, Myanmar Chemical and Machinery Company, Htoo Group, Asia Green Development Bank 등) 등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군부와 밀착하여 사업을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 기업으로 떼자(Tay Za)가 총수로 있는 투 그룹이 있으며, 항공운수업(에어버강)을 비롯하여 금융업(AGD은행), 건설업, 제조업 및 스포츠(양궁축구클럽)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거대한 경제 그룹이다. 2007년 미국의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고 NLD 정부가 성립하고 난 이후 2016년 제재에서 해제되어 다시 기업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번 군부의 재등장으로

그룹 부활의 호기로 여겼다.

2021년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정치범 석방을 포함한 군부가 자행했던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던 것에 이어 2022년 9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NLD 정부의 우짚모똥(U Kyaw Moe Tun) 대사가 1년간 더 미얀마대표부를 이끌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처음으로 미얀마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폭력 중지와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 및 비상임이사국 인도는 기권하였다(UN 2023). 한편, EU와 ASEAN과의 회의에서 미얀마를 대표할 인물로 NUG의 인권부 장관인 우아웅묘밍(U Aung Myo Min)이 지명되었다. 이로써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서구사회에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IV. 사회·문화적 위기

1. CDM 지지 학생들의 등교 보이콧

양공대학교, 만달레대학교 등 대도시의 종합대학교는 2022년 후반기에 들어와 시민저항의 세력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전의 모습을 완벽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 군부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비폭력 저항을 택하고 있는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개인 학습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NUG가 운영하는 통신 대학 미얀마네우(Nway Oo)대학(MNOU)¹⁴⁾에서 온라인 학습 등을

14) MNOU의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스북을 참조할 것.
<https://www.facebook.com/mnou2022/posts/106368978910954/?paipv=0&eav=AfaVrf2>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UG가 운영 주체인 하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NGO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 자체가 국내 서비스망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땃마도의 접근이 어려운 저가잉, 머궤 일부 지역에 한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군부의 공세가 날로 심하여 이제 MNOU는 시민저항의 상징으로 더 알려져 있다.

국내 교육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미얀마 청년들은 해외 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군부 정치 장악으로 3년 만인 2022년 10월에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는 이전보다 1천 명이 더 많은 3,064명이 응시하여 한국 유학의 꿈을 꾸는 미얀마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정호 2022). 6등급이 최고 점수인 TOPIK은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국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미얀마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다.

미얀마 역사를 통하여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야는 단연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미얀마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았고, 1988년 사태로 대학은 거의 10년 이상 문을 닫았고, 90년대에 들어와 대학생의 데모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양공대학, 만덜레대학은 대학원 대학으로 바뀌고 더공대(양공), 야더나봉대학(만덜레) 등 학부 전용 대학들이 도심을 벗어나 시외 지역에 설립되었다. 90년대 이후에도 잦은 대학 봉쇄가 있었고 대학 교육의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미얀마에서는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DSA, Defence Services Academy)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이며, 이곳 출신의 군 장교가 미얀마의 엘리트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한국의 유신 정권 시

질 우리의 육군사관학교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경제 위기로 사회적 불안 상승

이번 군부의 재등장으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기이한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생겨났다. 거의 부정적인 측면의 사실들이어서 아직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마약 사용은 20세기 말기부터 생겨난 동남아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현상이었지만, 미얀마에서는 좀처럼 볼 기회가 없었다. 군부 집권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마약(아편이 아닌 동남아에서 흘러 들어오는 X-pill 등 향정신성 물질)이 나돌기 시작하다가 최근 정치적 변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으로 마약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소문이다. 특히, 노래방 같은 공공시설에서 마약 사용을 금한다는 노골적인 경고문이 붙어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또한, 양공, 만덜레 등 대도시에서는 절도, 강도 등 예전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로 치고 핸드백을 탈취하는 예도 있고,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심지어 공개된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절도나 강도를 행하는 사례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절도나 강도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Radio Free Asia 2021). 적어도 시민들의 안전을 일부 담보하는 경찰이 모두 정치적 상황에 투입되었고 경제 파탄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부 택시에는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를 보호하는 철망이 설치되었다.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망으로 완벽하게 운전석을 감싸고 있지만, 승객은 마치 범죄자인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든다. 이 사진 한 장으로 현 미얀마의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겠다.



<그림 1> 운전석을 완전히 감싸는 보호 창살. 출처: 강민지

3. 불교 사원의 보시에 대한 의혹

미얀마의 불교 사원은 한 치의 의혹도 가질 수 없는 성역의 장소이다. 미얀마 불교도의 신앙적 깊이와 불교 부문에 대한 신뢰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군부의 재등장은 종교 분야에도 완벽하게 치료하지 못할 큰 상처를 주었다. 지난 역사를 통하여 정치적 변동이 심했던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 심각한 사회적 변화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장악에 성공했지만 재정 위기에 봉착한 군부가 대규모 사원의 보시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 2021년 2월 이후부터 나돌기 시작

했다(Myo Htun 2021). 이 소문은 특히 웨더공 사원이 위치한 양공에서 일파만파로 소리 없이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군부에 불만을 지닌 불교도들이 보시를 보류하는 쪽으로 선택하였고 그것이 보시의 감소를 초래했던 이유로 볼 수 있다. 사원 재정을 담당하는 사원운영위원회(고버까)는 급기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웨더공 사원에 기부해주신 보시금은 정부 은행에 예치하여 고버까의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사용한 내역은 관계 부처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원운영위원회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소문을 믿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웨더공 사원운영위원회.
(Shwedagon Pagoda 2021)

그러나 그 소문은 2022년에도 전혀 잠들지 않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¹⁵⁾ 심지어 웨더공 파고다에 붙여 놓은 금판이 손상당했다는 얘기도 있으며, 그 금판을 군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된다는 다소 황당한 소문도 나돈다. 불교 부문에 이런 의혹이 발생했다는 것은 30년 넘게 미얀마를 찾았던 저자에게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군부의 지배가 싫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교와 관련된 일을 엮어서 이런 소문이 나왔다는 사실은 놀랄 만하다. 그리고 사원운영위원회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면 일반 불교도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15) 언론 보도가 자유롭지 못했던 20세기에 있어서 미얀마의 소문은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우리로 치면 ‘짜라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입소문’이다. 그 입소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과거 양공 다운타운의 행정부서가 있는 골목의 ‘랑베자잉’(길거리 식당 카페)이며, 그곳의 엉덩이만 살짝 걸칠 수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간단한 먹거리와 ‘러켓예’(차)를 먹으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듣는다. 그것이 미얀마의 입소문의 진원지이고 당시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정치 얘기가 오고 갔다. 그러고 보면 그런 얘기가 결국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이번 소문도 거의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V. 맺는 글

2008년 헌법은 기본적으로 군부와 민간정부가 싫든 좋든 간에 정치적 파트너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치적으로 군총사령관은 대통령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군대, 경찰, 심지어 국경 지대를 총괄하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도 군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군부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25%를 임명하며 입법은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개헌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 지금의 헌법 체제에서는 군부의 존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장기로 치자면 게임에 절대 필요한 차와 포를 떼고 고수를 맞이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2010년대 군부의 퇴진 이후 2015년 총선 대승으로 2016년 집권했던 NLD 정부는 그 이유야 무론 하고 군부와 잦은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다. 대화의 단절은 군부가 로힝자 사태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2020년 총선을 둘러싼 군부의 대화 요구에 불응했던 NLD 정부는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였던 군부 정치권 장악을 허용하였고 결과적으로 NLD를 열렬히 지지했던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렸다. NLD 정부의 정치력 한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번 군부의 비상사태가 이뤄진 헌법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사실상 민간-군부의 협력체(Maung Aung Myoe 2021: 37)로 여기는 관점이 우세하다. 물론, 이번 군부의 정치적 개입처럼 민간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위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의 전횡을 각오해야 한다.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한 NDSC의 위원 11명 중에서 군부는 과반수인 6명¹⁶⁾을 차지하여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뒤집을 수 있는

16) NDSC를 구성하는 위원은 총 11명으로 대통령, 부통령 2명, 군총사령관, 부사령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따라서 악법이긴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민간정부는 군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치적 논리를 펼쳐 군부의 위상을 부정한다 해도 결국 그 결과는 지금처럼 파괴와 혼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022년은 역시 혼돈의 지속이었다. 희망을 나타내는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지 모르겠다. 정치적으로 총선의 얘기가 군부에서 나왔고 그것이 결국 추진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지 가늠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부의 강력한 집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2010년 군부의 퇴진과 총선의 실시처럼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 이 난국을 일단 벗어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미얀마를 둘러싼 국제사회도 양자로 나뉘어 있어 군부 사퇴의 실질적인 압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미얀마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당사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행태가 아니었나? 결국 국민이 받을 고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와중에 국제정치의 구조, 경제 투자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을지 모르겠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모하는 군부에 대한 저항 의식을 품고 있으면서도, 평소에 거의 없던 도둑이나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외출하기가 두려운 생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얀마의 불교 상징이었던 쉐더공 파고다의 보시 사용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깊은 신앙심을 지닌 불교도가 많은 미얀마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이 처음으로 생겨나기도 했다.

향후 군부가 실행에 옮길 로드맵은 무엇일까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하루라도 빨리 2022년과 같은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경부 장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중에서 군부 지명 부통령, 군총사령관, 부사령관, 군부가 임명하는 국방부·내무부·국경부 장관 등 6명이 군부 지지 위원이 된다. 아웅산수찌가 국가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외교부 장관직을 유지한 것은 NDSC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박장식 2021: 273).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오슬로에서 평화를 공부하는 티하(Amara Thiha)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Thiha 2022). 우선, 이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총선의 실시이다. 나르기스가 하부 미얀마를 할퀴고 갔던 2008년 5월 두 차례로 나누어 신헌법의 채택을 물었던 선거를 실시한 것도 군부이다. 그러니까 군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의 정치적 행위가 위헌이 되지 않도록 선거를 강행할 것이다. 둘째는 다소 의외의 얘기인데, 식량과 에너지 확보 전략이다. 스리랑카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 국민의 배고픔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그나마 군부의 존재 이유를 잘 납득시키는 길이라 여긴다. 하지만, 교육의 정상화도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주저앉은 미얀마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다. 셋째는 국제사회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지해줄 세력을 모으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갖고 있다.

국가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36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한(IISS 2022: 292) 미얀마 군부는 이제 존 퍼니발(Furnivall 1948)이 과거 식민주주의의 유럽 국가들을 지칭했던 거대한 혼돈의 괴물 레비아탄(Leviathan)이 되어버렸다. 도무지 비폭력의 시민들이 맞싸울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이다. 그들은 독립 초기 무능했던 민간정부가 초래했던 연방 해체의 위기를 무기로 삼아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존재 당위성을 주장한다. 게다가 군부에게 엄청난 힘을 공급하는 2008년 헌법이 존속하는 한 미얀마에서는 절대로 공정한 정치를 구사할 수 없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미얀마의 국민 구성은 복잡하여 하나의 미얀마 국가를 선호하지 않는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이 생길수록 군부의 존재는 빛을 발한다. 2022년의 미얀마는 여전히 혼

란과 무질서가 지속되었지만, 미얀마인의 불의에 대한 저항 의식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박장식. 2009. “미얀마 천연가스의 정치경제학.” 『동남아시아연구』 19(2):93-134.
- _____. 2021. “미얀마 군부 지배의 역사적 고찰 - 그 정치 동력의 구조.” 『역사비평』 136:255-281.
- 이정호. 2022. “미얀마서 3년 만에 한국어능력시험…3천 명 넘게 물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7083500009> (검색일: 2022.11.07.)
- 장준영. 2021. “미얀마의 정치위기와 불확실한 미래: 군부의 무기와 시민의 세 손가락.” 『아시아 브리프』 1(3):1-6.
- KOTRA. 2022. 『2023 미얀마 진출전략』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 AAPP. 2023. Political Prisoners Post-Coup.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Burma)*. <https://aappb.org/> (검색일: 2023.01.10.)
- Aljazeera. 2022. “‘Friendly ties’: Myanmar’s top general to visit Russia.” *Al Jazeera and News Agencies*. September 3. <https://www.aljazeera.com/news/2022/9/3/myanmar-junta-leader-to-visit-russia> (검색일: 2023.01.05.)
- Bloomberg News. 2021. “Myanmar Plans to Hold Fresh Election in August 2023, Junta Chief Says.” *Bloomberg*. December 2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2-23/myanmar-to-hold-fresh-election-in-august-2023-junta-chief-says#xj4y7vzkg> (검색일: 2022.12.27.)
- Bristow, Michael. 2007. “Chinese dilemma over Burma protests.” *BBC News*. September 25. <http://news.bbc.co.uk/2/hi/asia-pacific/7011746.stm> (검색일: 2022.11.27.)

- Callahan, Mary. 2023. "From the coup to something called an 'election'." *Frontier Myanmar*. January 3. <https://www.frontiermyanmar.net/en/from-the-coup-to-something-called-an-election/> (검색일: 2023.01.05.)
- Council of the EU. 2022. "Myanmar/Burma: EU imposes further restrictive measures on 19 individuals and one entity." Press Releas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November 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1/08/myanmar-burma-eu-imposes-further-restrictive-measures-on-19-individuals-and-one-entity/> (검색일: 2022.11.20.)
- Furnivall, John S. 1948.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s Indi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RW. 2022. "Myanmar: ASEAN's Failed '5-Point Consensus' a Year On." *Human Rights Watch*. April 22. <https://www.hrw.org/news/2022/04/22/myanmar-aseans-failed-5-point-consensus-year> (검색일: 2022.08.30.)
- IISS. 2022. *The Military Balance 2022*.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Krishnan, Murali. 2022. "What is India's relationship to Myanmar's military junta?" *DW*. August 8. <https://www.dw.com/en/india-walks-diplomatic-tightrope-on-myanmars-military-junta/a-62685316> (검색일: 2022.11.27.)
- Macan-Markar, Marwaan. 2021. "Thai PM and Myanmar junta chief stay engaged via back channels." *Nikkei Asia*. May 12. <https://asia.nikkei.com/Spotlight/Myanmar-Crisis/Thai-PM-and-Myanmar-junta-chief-stay-engaged-via-back-channels> (검색

일: 2021.07.02.)

- Myo Htun. 2021. “Rumours that military seized pagoda funds Are false: pagoda.” *Eleven*. February 13. <https://elevenmyanmar.com/news/rumours-that-military-seized-pagoda-funds-are-false-pagoda> (검색일: 2022.11.28.)
- Nikkei Asia. 2022. “Myanmar central bank says FX deposits must be converted into kyat.” April 4. <https://asia.nikkei.com/Business/Markets/Currencies/Myanmar-central-bank-says-FX-deposits-must-be-converted-into-kyat> (검색일: 2022.11.27.)
- Radio Free Asia. 2021. “Crime rates on the rise as the junta cracks down on political unrest.” *Radio Free Asia*. January 16. <https://www.rfa.org/english/news/myanmar/crime-01142022181101.html> (검색일: 2022.02.20.)
- Shwedagon Pagoda. 2021. Shwedagonzedidawmya?kyii ahluhkanyash ingwemyago asoyabandwindha a?hnanhtashiywe gawpaka sim yinsikanmyaneanyi athounpyulye?shibadhi. [미얀마어, 쉐더 공 사원의 보시는 정부 은행에 예치하여 사원운영위원회의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Facebook. February 13. <https://www.facebook.com/shwedagonpagoda> (검색일: 2021.03.10.)
- Strangio, Sebastian. 2022. “Pariah Solidarity: Myanmar-Russia Relations Blossom Amid Western Sanctions.” *The Diplomat*. August 15. <https://thediplomat.com/2022/08/pariah-solidarity-myanmar-russia-relations-blossom-amid-western-sanctions/> (검색일: 2022.09.01.)
- _____. 2023. “Myanmar’s Military Junta Takes Step Toward Controversial Election.” *The Diplomat*. January 5. <https://>

thediplomat.com/2023/01/myanmars-military-junta-takes-step-toward-controversial-election/ (검색일: 2023.01.06.)

Taylor, Robert H. 1996. "Elections in Burma/Myanmar: For Whom and Why?" Robert H. Taylor (ed), *The Politics of Elections in Southeast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iha, Amara. 2022. "The Myanmar Military's Roadmap to Survival 1." *The Diplomat*. August 10. <https://thediplomat.com/2022/08/the-myanmar-militarys-roadmap-to-survival/> (검색일: 2022.12.10.)

UN. 2023. Security Council 2022 Round-Up Release. January 12. <https://press.un.org/en/2023/sc15172.doc.htm> (검색일: 2022.11.30.)

U.S. Department of State. 2022. "Burma Sanctions." <https://www.state.gov/burma-sanctions/> (검색일: 2022.11.30.)

(2023.01.25. 투고, 2023.01.25. 심사, 2023.02.13. 게재확정)

<Abstract>

Myanmar in 2022: Lasting Chaos and Dismal Future

Jang Sik PARK
(Dong-A University)

The Myanmar military's takeover, occurring on February 2021 just before the opening of the Myanmar National Assembly led by the NLD, which won a landslide victory in the November 2020 general election, is now entering its second year. The military regime, which appeared on the political front through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stipulated in the 2008 Constitution under the pretext of illegal cases of general elections without grounds, encountered stubborn resistance, or civil disobedience movement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This was an unexpected civil consciousness that could not be found in the past history. Therefore, chaos has continued in all areas throughout 2022. It was also a time when new and different aspects emerged, such as civil resistance, Western economic sanctions, social disorder and instability, and religious distrust, etc.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escribe and examine what changes have happened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o-culture and what things have been continued during 2022.

30 동남아시아연구 33권 1호

Key Words: Myanmar, Military Regime, Coup/Takeover, 2008
Constitution, SAC/State Administration Council,
CDM/Civil Disobedience Movement, Leviathan, Sanction,
Conflict